

“얼굴 대신 마음 가꾸니 행복이 절로...”

못생긴 이유

“봉사가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얼굴이 워낙 못났잖아요. 저 같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게 좋아요.” 장애우 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L 씨가 웃으며 말한다. L 씨는 어릴 때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비관하고 다른 아이들만큼만, 평균만큼만 예뻐하면 하고 바랐다. 못나게 나아주는 부모님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다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었다. 특히 <삼제인과경> 등 전생과 업보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현실의 어떤 문제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으며 전생에 해 놓은 업보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 때부터 L 씨는 ‘내가 이렇게 못나게 태어난 것은 전생에 못난 사람들을 비롯했거나 잘난 착했기 때문인 거야’라고 믿게 되었다. 무엇보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스님과 도반들을 접하면서 마음의 힘이 훨씬 중요하다고 배우게 되었다.

아름다운 마음의 힘

거울을 볼 때는 얼굴보다 마음의 아름다움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⑬ 외모보다 강한 마음의 힘

다움에 신경쓰라는 말씀을 떠올렸다.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자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지어졌다. 매일 기도를 하고 참회하며 다른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때때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이 너무 못나서 시집가기 어렵겠다”는 놀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신 이는 어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저처럼 어떤 면이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다 보니 이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항상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요.”

가장 감사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봉사센터의 사람들도 ‘우리 보살님, 보

못생긴 얼굴 비관 부모님 원망
: 절에 다니며 내면 수행에 정진
: 자원봉사 활동하며 행복 찾아

살남’ 하면서 같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먼저 그를 찾게 되었다. 잘 생긴 봉사자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인기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

“과연 정말 사람들이 찾는 것은 외모보다 진실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L 씨는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아름다움을 실감하고 열심히 기도정진하게 되었다. 화장을 덜하고 화장품 값도 봉사하는 데 더 보태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보는 사람마다 더 예뻐졌다고 한다.

그는 은근히 신이 나고 있다고 한다. 마

음을 비울수록 아름답다는 부처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사실 저, 성형수술이라도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이제 보니 바로 성형수술 할 것 같은 제 마음이었어요!”

보살의 마음 닦기

얼짱, 몸짱이라는 말이 유행하며 사회에서는 외모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며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늙게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다. 참회하고 나누며 봉사하는 보살의 마음, 차별하지 않고 서로 믿어주고 위하는 참된 불자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그 어떤 외모에도 비할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커다란 희망이다. 타고난 얼굴이나 신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누구나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 자격, 조건, 능력에 상관없이 무한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보살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보다 아름답게 변해 보면 어떨까.



한비아의 ‘행복한’ 사치

한비아씨에게는 피부색이 다른 딸이 셋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젠레부, 방글라데시의 아도리,

그리고 몽골에 사는 엔크호진이 그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비아 엄마’ 덕분에 다시 연필도 잡고 꿈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비아씨가 그녀의 딸들을 위해

쓰는 돈은 한 달에 겨우 커피 몇 잔 값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나눔으로 한비아씨는

그크기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의 사치’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사치는

한비아씨 같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면, 시작만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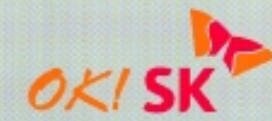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내 손에 움켜쥔 것을

조금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펼치면 찾아오는 행복 -

그래서 나눔은 누구나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행복은 쉽다!



한비아씨의 광고출연료 전액은 월드비전의 청소년을 위한 세계시민학교에 쓰여집니다. 세계시민학교는 세계간담구호현장을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을 나눔의 마음을 가진 글로벌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지탱해준 인연 (하) 주보문심 서울 마포구 망원동

이렇게 남편이 불법에 눈을 떠가면서 정진하고 있을 무렵, 저는 그 전에 중단된 불사를 다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불사에 동참하게 됐는데, 그 불사는 불교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남편도 불교복지에 쓰이는 일이라 승낙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90% 다 된 사업이 몇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중단되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나 절망했습니다.

부처님 일을 한다는 마음에 집까지 처분해 사업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 일을 한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 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인해 폭음하는 날이 늘어갔고, 급기야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망가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선 화병이라고 했지만 병원진단결과 후두암 2기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우선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남편의 사회활동은 중단되고, 외로운 무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에게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남편은 다시 불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일까? 한때의 방황을 마치고 남편은 마음을 돌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매일매일 좌선을 하며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좌선하고 있던 중 비몽사몽간에 꽃피가 내리더니 화관을 쓴 관세음보살님이 환하게 웃으며 나타나시고, 잠시 후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목에서 무엇을 떼면서 “아직 갈 때가 안 됐군”하면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 후에야 남편에게 들어서 알 수 있었죠. 차츰 목소리가 나오고 점점 몸이 회복되어 5년 후에는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림: 문병성

불사 중단·남편 후두암 판정 시련 경전공부에 정진하며 역경 이겨내

그러나 저는 그 사업이 중단된 후유증으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던 가게도 처분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제 심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비록 그전같이 선원에는 가지 못했지만, <금강경> 독송과 <현수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도 계속 리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인공에 맡겼습니다. 언젠가 이 역경에서 벗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절의 법당에서 부처님께 참회하며 하루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스스로 위안하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개발하던 곳을 시에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남편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은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남은 여생을 불법에 귀의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불탑공부도 더 많이 하고, 몸의 건강을 회복하여 인도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첫째 소원이라고 말하죠.

지난해에는 불교방송 다보원에서 진행한 ‘100일 법문’ 법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100분 큰스님들의 훌륭한 법문을 듣고, 저 자신이 한층 더 성숙한 느낌이 듭니다. 방송으로만 들던 큰스님들의 경전공부도 계속하고 있지요. 저는 요즘 매일 새벽 5시 불교방송의 새벽예불 기도를 시작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경전공부 시간에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경전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백팔참회문을 시작으로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를 매일 스물 한 번씩 독송합니다. 매주 금요일 다보원에서 하는 ‘신묘장구대다라니 49쪽’ 기도 정진도 빠지지 않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법당에 앉아 살아온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비유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불법에 눈 뜨게 한 여러 스승님들, 그분들 중에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련을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불교의 인연법을 잘 알기에 모두 다 제 탓으로, 그리고 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시련들이 있었기에 더욱 든든한 불자가 거듭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합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력에 항상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수행하여 전생과 금생의 모든 업을 소멸하고 내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을 받을 것을 발원하며, 오늘도 제 자신을 제 짝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끝)

산영게시판

● **봉정암 사찰 순례**=서울 법정사는 6월 5~6일 설악산 봉정암으로 성지 순례를 떠난다. 오전 6시 법정사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5월 31일 첫 강의를 시작한 영산불교학교 야간 경전반(금강경)은 9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강의한다. (02)971-0303

● **자랑 스님 출판 사인회**=서울 능인선원 주지 자랑 스님은 <정진 행복을 부르는 힘을 펴고 6월 한달 사인회를 개최한다. 3일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시작된 사인회는 9일 오후 3시 강남 교보문고, 10일 오후 3시 중로 영풍문고, 16일 오후 3시 강남 영풍문고, 24일 오후 3시 분당 교보문고, 30일 오후 3시 부산 영광도사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02)577-5800

● **한미음선원 산악회 신행**=인양 한미음선원 산악회가 6월 10일 경북 문경 화양산 등반에 나선다. 산악회 정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등반은 10일 오전 7시 선원 앞에서 출발한다. 회비는 2만원. 등산 배낭, 방풍우의, 모자 등 개인물품을 챙겨야 한다. (01)202-8842

● **미항사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항사가 참 나를 찾아가는 7박 8일간의 출가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6월 16~23일 7박 8일 동안 진행한다. 14~65세인 일반인 또는 학생이 참가 대상. 30명이 함께 출가수행을 할 수 있다.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 다양한 불가의 수행 정진법을 체험할 수 있다. 동참금은 35만원. (06)1535-2706

●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불교영어 강좌 개설**=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6월 2일~7월 21일 불교교리 영어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진행되는데 불교영어강좌는 영어를 통해 불교를 바르게 배우고, 사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불교교리 및 사찰안내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이다. 과정을 이수하면 한국불교대학 불교영어 강좌 수료증을 교부하며, 조계종 국제포교사 자격고시 추천서도 발급해준다. 강좌는 예불문(Homage to the Three Jewels Chanting), <천수경(Thousand Hands Sutra)>, 사찰건축(Architecture of Korean Temples), 벽화(Wall Paintings),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이다. (053)474-8228